



보도 시점	<전매체> 4.28.(화) 08:00	배포	2026.4.28.(화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AI기술사업팀	책임자	팀 장	김보민 (044-300-0970)
		담당자	주 임	윤보운 (044-300-0976)
배포 부서	소통홍보팀	책임자	팀 장	김민철 (044-300-0720)
		담당자	주 임	김셋별 (044-300-0721)

중소제조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.. 현장 수요 확인

- 중소기업 특화 다중 인공지능 협력 모델 사업 14.3대 1 경쟁률 기록
- 자동차부품·금속가공·식품·뷰티 등 중소기업 현장 수요 확인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김영신, 이하 기정원)은 「중소제조 특화 다중 인공지능 협력 모델 사업 - 시범연구」 공모(3.19.~4.17.) 결과, 총 12개 과제 선정에 172개 과제가 신청해 14.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
 - 해당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공정 문제를 해결하고,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.
- 이번 공모 결과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, 실제 문제 해결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 - 생산성 정체, 품질 편차, 공정 복잡성 증가 등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활용 수요가 늘고 있으며,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연구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접수된 과제의 상당수는 제조 공정 개선과 품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, 중소기업 기업이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,

현장 문제 해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- 산업별로는 자동차부품(26.7%), 금속가공(19.2%), 식품(17.4%), 기계장비(16.9%) 등 공정 복잡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가 접수됐다.
- 이는 기존 자동화·정보화 수준을 넘어, 공정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□ 향후 선정평가는 기술성, 사업성, 시범연구 적정성,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.

- 접수된 과제는 4월 신청자격 검토를 거쳐, 5월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되며, 6월 협약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.

□ 기정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은 “이번 공모를 통해 중소 제조 현장에서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관심이 실제 적용 수요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”며,

- “특히 기업이 현장 문제 해결을 전제로 과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, 향후 인공지능 기술개발은 현장 적용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며,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